



찬바람이 불면~ 축농증, 비염 때문에 괴로워!

글 □ 홍정표(태원한의원 원장)

요 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는 비염과 축농증 환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계절이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계절에 콧물을 흘리는 것을 '폐한증(肺寒症)'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폐가 차가운 기운에 상(傷)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다.

콧물을 흘리는 것은 폐가 춥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체로 양방에서 말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한방에서의 폐한증은 찬 기운을 접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나서며 찬 공기를 마실 때, 냉수를 마신다거나, 찬

물에 손만 담가도 재채기나 맑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지어는 냉장고문을 열기만 해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소연하는 주부들도 드물지 않다.

관상학적으로도 중요한 코는 우리 얼굴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정중앙에 있는 코에 병이 깃들게 되면 재채기, 콧물흐름, 숨쉬기의 불편함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위로는 안충혈, 안구가려움증,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귀 쪽으로는 이명, 중이염, 난청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아래로는 치아 부정교합, 안면기형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산소 흡입량이 적어져 뇌에 충분히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억력 감퇴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기관지염, 천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비염과 축농증은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고 일시적으로 나왔더라도 재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왔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비염과 축농증을 다스리기 위해 예로부터 민간요법이 애용되었는데, 수세미 줄기 10~15g을 달여서 먹거나 약한 불에 볶아서 가루를 내어 콧속에 넣어넣기도 하고, 모란뿌리 껍질이나 코나무(느릅나무) 껍질 5~6g을 물에 달여 하루에 한 번씩 잠자기 전에 먹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데에는 사람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내려오던 비방과 20년 동안 임상에서의 연구결과를 서로 보완해 개발한 약 복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태극청명환'으로 불리는 이 약은 토종약재 15가지 성분으로 만든 것으로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염에 재발이 거의 없을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며, 식후 30분에 하루 3회씩 생강차와 함께 마시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병에서 그렇듯, 지나친 음주나, 흡연, 분노, 근심 등을 지양하고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卞

▶ 이 글을 쓴 홍정표 원장님은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태원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